

■ 基調演說

平生교육과 圖書館

金 世 翊
梨花女大 教授

1. 學校教育의 限界性

일반적으로 대학까지 합쳐서 16년이란 기간은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서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어린 유년시대와 노후를 빼면 그것은 거의 인생의 절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시간이며 그 오랜 세월에 걸쳐 습득한 지식도 방대한 량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으나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실감할 때가 많다.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는 월새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른 바 정보의 폭발시대에 사는 오늘의 인간들에게는 학교교육의 한계성을 실감하게 된다. 국가나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한 개인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애에 걸친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차원의 교육의 가장 좋고 효과적인 시설은 도서관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인 것이다. 평생교육이란 개념은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사람은 학교교육에서 습득한 심오한 학문적 이론이나 지식만 가지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고나 행위의 기초가 될수는 있지만 완전한 지식체계나 행동규범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람은 이와 같은 기초작업위에 끊임없이 무엇을 더해 나가는 노력과 뜻을 계속해야 될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교육에 풀러스알파를 더해야하는 그 알파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일 것이며 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합쳐서 나는 평생교육이라고 규정 짓는다. 또 유의해야 할 일은 학교교육 자체에도 허다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헛점은 개성교육이나 능력별 교육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인 것이다. 서로 능력이 다르고 의식수준이 다른 수십명의 학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한사람의 교사가 한편의 교과서와 몇권의 참고서를 가지고 교육하는 현상은 기본적으로 약점을 가지게 된다. 이런 약점과 헛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설은 도서관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의 이

용없이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고 도서관 없이는 평생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신념인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 할지라도 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가 흡수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보는 한 개인의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며 교과서나 참고서도 그 지적인 수명이나 유용성에 스스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정보의 홍수시대 지식의 폭발시대에 있어서의 도서관은 학교도서관이건 공공도서관이건 그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Pierce Butler는 다음과 같이 말하므로써 사회와 도서관, 문화와 도서관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그의 도서관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도서관은 근대문명에 있어서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도서관은 그래서 사회조직이나 사회기구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하나의 단위(單位)인 것이다. 문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험의 사회적축적(社會的蓄積)이며, 이와같은 축적된 경험에 의하여 각 세대의 사람들은 조상들이 이룩한 모든 지식을 승계하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한 개인을 초월하는 것이며 도서는 인류의 기억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일종의 사회적 메커니즘이며 도서관은 이것을 현재에 살고 있는 개인의 의식속에 전달해주는 일종의 사회적 장치다」라고 말하고 있다.

1930년대에 발표된 이와같은 Butler의 문화, 도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당시로서는 참신한 인상을 주는 탁견이었다. 다만 그와같은 인식은 지나치게 역사적인 의식구조나 종적인 논리전개라는 비판도 있지만 도서관이 사회조직이나 구성에 필요불가결한 단위라는 말은 오늘의 한국에 사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깊이 성찰하고 이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사회구조에서 도서관이 하나의 필요단위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다만 관념적인 상식론 만이 횡행하고 있을 뿐이다.

2. 近代化過程에서 소외된 도서관

해방후의 한국의 도서관문화에 두번에걸친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있었다.

첫번째는 해방직후에 국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박봉석 이재욱씨등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한국도서관의 정지작업이었다. 그 당시의 열성적이며 애국적이었던 도서관인들의 희생적인 노력이었으나 당시의 사회적 여건이나 6.25동란은 이것을 꽃피게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다만 한국 근대도서관사의 향수같은 여운만을 남겨주었을 뿐이었다.

두번째 계기는 1950년대 초반에서 중반에 있었다. 열성적인 도서관인들은 도서관 협회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1957년경에 미국 교육사절단의 Mrs, Swiger나 Mr, Burgess Mr, Elord, Mr, Closliv같은 사람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도서관 중흥의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국가적 차원으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는 국가의 근대화작업이었다. 경제개발 수출증대라는 지상목표를 위하여 국력의 모두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은 거센 역사적 격동기에 우리의 도서관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소외되고 침체의 국면에 빠지고 말았다. 후진국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모든 것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발전할 수가 없다. 1960년대의 우리의 국력은 도서관 문화발전에까지 손을 미칠수가 없었던 것이다. 1970년에는 국력도 상당히 신장되었지만 타성적으로 도서관은 침체현상을 면할 수가 없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큰 건물의 도서관도 생겨나고 전문적 교육을 받을 유자격 사서도 많이 배출되고 도서관 예산도 증액되어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국력이나 우리의 문화교육의 수준으로 보아 도서관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실감이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 모두의 것이 못되고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실정을 볼때 또 그와 같은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도서관이 총체적으로 제구실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결코 없다.

지금은 세번째의 계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도서관에 대해 전국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우리 도서관의 낙후성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에 양성된 사서들의 자각도 싹트기 시작하였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제 사회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는 힘이 배양되었다. 이 기회를 또 놓지면 한국도서관의 발전은 백년하청(百年河淸)을 기다리는 격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 개정작업이 활발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도서관법도 그 방향감각만 제대로 잡으면 도서관발전의 하나의 기록제적 구실을 할것으로 기대된다. 법은 개정하므로서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다. 도서관법을 개정한다는 것 자체보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개정되느냐가 큰 문제인 것이다.

3. 도서관법 개정 문제

저는 아직 현재 진행중인 우리 도서관법의 초안이나 그 내용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할 처지가 아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도서관법이 우리나라 도서관문화의 근대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믿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나는 평소에 우리나라 도서관법의 본질적 구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다소의 회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한나라의 도서관법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촉진법이나 공공도서관 발전법 공공도서관 원조법 같은 성격인줄 알고 있다. 우리의 도서관법처럼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심지어는 특수도서관까지 포함시키는 종합적인 도서관은 없는 줄로 알고 있다. 대학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교육의 필요에 따라 교육법이나 일본처럼 학교도서관법에 의하여 가능하며 특수도서관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또 그 기관의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도서관법의 후광없이도 발전이 가능하다. 아무런 영향력이나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 도서관법을 적용시킨다면 그 법의 성격이 희미해지고 그 성격이 모호해질 뿐이다. 극단적으로 말해 현행 도서관법이 유명무실한 것은 이와 같은 모호한 성격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나라의 도서관문화의 기본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서 성인교육이나 사회교육 나아가서는 평생교육의 기지(基地)로서 봉사하는 공공도서관이다. 공공도서관의 발전없이는 그 나라의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기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인식이다. 또 그 목표에 있어서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의 센터가 되는 기지로서, 시설로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4. 平生教育에 있어서 도서관의 意義

평생교육은 도서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여러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필요에 따라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단기간의 재교육, 재훈련을 받는 예는 외국대학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토요일대학이나 주말대학 계절대학등 평생교육을 위해서 대학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대학도서관은 활발히 이용되지만 그것은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평생교육의 개념을 어린이나 노인들을 위한 도서관 봉사라는 점에 집중시켜서 말하겠다.

공공도서관의 고객은 학생보다는 어린이나 노인 그리고 지역사회 모든 주민들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도서관이 정비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으로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을 애용하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보다 더 쾌적하게 꾸며진 학교도서관이 학교마다 마련되고 수업전이나 방과후나 공휴일, 일요일 방학중에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학교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밀학급 콩나물교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학교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학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학급문고 교실의 열람실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점진적으로라도 학교도서관의 정비는 가능해지며 또 그래야 한다. 국민들의 부담이 크고 고통도 크지만 이번에 받게되는 교육세의 상당한 부분이 학교도서관의 정비에 투자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이나 문화발전이 본질적으로 크게 향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공부방에서 해방되어 평생교육의 가장 좋고 효과적인 센터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는 아무래도 교과학습이 주가 될수밖에 없으며 어른들의 여가선용, 독서자료를 통한 오락의 즐거움은 공공도서관의 아동실에서 말아할 수 있을 것이다. 유능하고 열성적인 아동사서는 교사로서 사서로서 부모로서 어린이들의 왕성한 독서 의욕을 충족시켜 주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독서습성을 심어주어 그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도 독서 습관이라는 이른바 Reading habit를 몸에 배이게 해야할 것이다. 어린시절에 독서를 많이한 어린이는 청소년 범죄를 이르는율이 적다는 것이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 어린이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도서실에서는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Story Teller로서의 사서의 이야기나 독서회 같은 모임을 가지면서 건전한 시민성 민주적인 의식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탁상공론이란 비난을 받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선진국이 되는데 더 많은 세월이 소요될 것이다.

점차로 늘어나는 노인사회문제도 도서관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50대에 벌써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도 도서관은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나가야 한다. 영국이나 북구의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노인 문제의 상당한 부분을 도서관에서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 같은 나라의 농촌에서는 주부들이 시장가는 길에 습관적으로 도서관에 들러서 책이나 음반이나 심지어는 벽에 걸어 놓을 그림 액자같이 매출해가는 광경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영국의 농어촌의 작은 공공도서관에서는 주말에 정기적으로 음악감상회를 열고 많은 주민들이 남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모습을 부럽게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도서관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Butler의 말대로 도서관이 사회의 필요불가결한 구성단위라는 인식이 일반화 되어야 할 것이다. 1군 1도서관

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정도로서는 실효가 나지 않는다. 제주도에 군이 2개 있는줄 아는데 2개의 공공도서관이 세워진다면 없는 것 보다는 낫겠지만 제주도 주민 모두를 생각할 때 그 실효에 회의적이 아닐 수 없다.

도서관이 꼭 커야할 필요는 없다. 구라파에는 서고대출대만있는 작은 공공도서관이 얼마던지 있다. 관외대출을 활발히 해야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많은 이동 도서관을 만들어서 군 뿐만 아니라 면, 리 까지도 그 봉사의 폭을 넓히는 과감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을 자기집 안방드나들 듯이 자기집 서재를 이용하듯이 즐겁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을때 우리사회는 복지사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에서 입관료를 받는 중세기적인 악몽에서 깨어나야 하고 관외대출을 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사고나 제도에서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발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와 사회 여건에도 있지만 도서관과 사서 자신의 의식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도서관법도 개정되는 이 제 3의 계기를 맞아서 합리적인 개선과 착실한 전진을 할 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당한 시설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면서 끝내겠다.

建國初有의

大韓民國法令沿革集

(全27卷)

大韓民國法令出版20年 傳統을 자랑하는 韓國法令編纂會가 우리나라 建國以後의 尙大한 法制資料를 總整理하여 그 變遷過程을 体系있게 集大成한 「大韓民國法令沿革集」이 全27卷으로 發刊되었습니다.

◀ 特 徵 ▶

- * 法令의 制定·改正沿革이 件名別로 年次的으로 整理됨.
- * 法令改正要旨를 圖表化하여 資料의 索引이 간편함.
- * 追加式으로 製冊이 되어있어 추후 改正될 內容을 收錄할 수 있음.
- * 以後 改正된 內容은 追錄으로 신속 普及됨.

韓國法令編纂會

110 서울特別市鍾路區通義洞13

電話 (723) 4135 · 2016 對替口座0508580